“부처님 자비·나눔 가치 세계 알리겠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2. 일면 스님 국제구호 후원 권선문

생명나눔, 지난해 이어 국제구호
캄보디아 20억 상당 물품 지원
의료 · 복지 실천으로 복 쌓아
세계시민 후원의 디딤돌 돼주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디딤돌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 유일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은 맞아 국제구호활동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1년 ‘글로벌 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20억 상당의 의료물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4월 선적식에 이어 8월에는 현지에 직접 방문해 의료물품을 전달했고, 고아원 방문과 스님들 교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자비나눔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 수준으로 저개발국에 속하는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 지배, 국민 3분의 1이 희생된 킬링필드 등 수십 년간 전쟁과 내란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전과 학살로 300여만 명이 사망했고 지금 현재도 매설된 지뢰와 불발탄으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중하위 소득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픔이 서린 캄보디아 땅에 희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캄보디아를 첫 국제구호활동 국가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2025년에는 국제구호활동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현지를 방문해 보육원 등을 방문하며 아동들의 생활 및 교육여건을 눈으로 직접 본 후, 아동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을 서원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물품지원과 함께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단체인 마하무용단과 협력해 진행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무용 교육과 공연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의 문화 교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쯔바몬 보육원에 노트북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캄보디아 따께오주와 교류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캄보디아는 근대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 또한 1950년 한국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일불제자로서 다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31년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기와 생명나눔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개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200여 환자들에게 45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서 25만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는 불교계 유일한 최대 사회단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어려움에 처한 세계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아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후원자들은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보다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빠듯한 살림살이에서도 남을 도우며 복을 짓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후원과 봉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자비심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이 보은경을 믿고, 알고, 실천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복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고 더해줍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 여정 31년. 미래의 31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꺼져가는 희망불씨를 되살리는 활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을 후원해주십시오. 생명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이 기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디딤돌이 되어 주세요.

2025년에도 캄보디아 의료취약계층 지원 이어진다

4월 19일, 20억 상당 의료물품 선적
6월 9~14일 시엠립 현지 지원 활동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를 넘어 국외로까지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활용 영역을 넓혔다.

부처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로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물품을 지원한 것이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첫 국가로 캄보디아를 선정하고 지난해 4월, 글로벌생명나눔과 협업해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캄보디아에 전달했다.

캄보디아 의료물품 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캄보디아는 호흡기 질환과 혈액 내분비, 신생아 장애 등에 의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기본 의료물품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태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도 캄보디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적식은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안산 제1물류창고에서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6월 중순,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직접 방문해 이날 선적한 의료물품을 직접 인수받아 앙코르톰 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지원 대상 국가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가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 재난이 국가에 닥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국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부처님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한다. 4월 19일 선적식을 갖고 6월 9일 시엠립주를 방문, 물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은 2024년 캄보디아에 전달될 의료물품을 선적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2025 해외지원사업 공동 모금 캠페인

“스님, 저는 맘껏히 공부하고 싶어요”

농협은행 301-0110-2407-41 생명나눔실천본부

낡은 나무 책상 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닮는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의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가방, 신발 등
후원 방법 계좌후원 (농협은행 301-0110-2407-41 생명나눔)
통화후원 (한통화 5천원 / 060-703-1133)
후원 문의 02-734-8059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406)